



2018 대전문인 사진·영상 아카이빙 자료집

# 대전문화의 빛장을 열어온 사람들

2018 대전문인 사진·영상 아카이빙 자료집

대전문학의 비전을  
그려온 사람들

빛장을 여는 글	4
2018 아카이빙 작가	7
장춘득 시조시인	8
임기원 시인	14
유종슬 아동문학가	20
박권하 소설가	26
권택영 문학평론가	32
김병익 문학평론가	38
정상순 시인	44
강태근 소설가	50
대전문인 사진·영상 아카이빙 소개	57

대전문화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전문인 사진·영상 아카이빙」 사업은 개관 이래부터 현재까지 6년차를 맞은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기관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훌륭한 원로 문인들의 생애와 작품 활동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간 직접 찾아뵙고 문학 이야기를 함께 나눈 작가님은 모두 55명에 이릅니다.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면서 한국 문단의 중심이 되고 있는 대전 문단과, 이를 이끌어온 원로 문인들의 노고에 비하면 그 숫자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디더라도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앞으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문학 이야기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기록화 하여 여러 선생님들의 삶과 열정을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해나가고자 하겠습니다.

이 소중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한 시간 내어주신 원로문인들과 의미 있는 작업에 늘 함께하여 주시는 CMB대전방송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재)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박만우

2018년 대전문인 사진·영상 아카이빙 자료집 『대전문학의 빛장을 열어온 사람들』을 발간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전과 인연이 깊은 여덟 분의 원로 문인들을 모시고 CMB 대전방송국과 함께 아카이빙 사업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뜨락에 영산홍이 불타듯 피던 봄날부터 붉은 단풍이 어지럽게 떨어지던 늦은 가을까지 기꺼이 출연해 주신 문인들과 구슬땀을 흘리며 아름답고 향기로운 영상을 만들어 주신 제작진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리 소중한 훌륭한 문화유산도 정리하고 다듬고 보관하여 후대에 물려주지 않으면 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작가의 소소한 일상이나 진솔한 삶의 모습이 담긴 영상과 생전에 들려주는 그분들의 목소리에서 개인의 사상이나 정서뿐만이 아니라 한 시대의 모습을 생생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대에서 유명한 작가나 아니냐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후에 얼마든지 작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고 다양하고 귀한 문학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 전해드리고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지도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전문화관장  
박진용



「대전문인 사진·영상 아카이빙 사업」은 대전 지역 문학의 정통성과 대표성을 가진 원로 문인과의 만남으로 지역문학을 계승하고 확대하며, 발전의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또한 문학이라는 예술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지역민과 문인들이 소통과 공감을 이룰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문학의 향기’는 원로문인 8인의 열정과 혼이 담긴 문학 작품을 통해 지역민에게 문학적 지식과 소양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대전 문학사에는 깊은 울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원로문인의 아름다운 기록을 살펴보고 되돌아봄으로써 지역문학을 재조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대전문인 사진·영상 아카이빙 사업」은 문학이라는 예술적·학문적 가치와 존엄을 지켜오기 위한 대전 문인들의 노력을 통해 지역민에게 감성과 삶의 지혜를 키워주며 문학의 향기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올 한 해도 지역민에게 지역 문학의 가치를 나누며 문학의 향기를 남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박진용 대전문화관 관장님과 문인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문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문학적 소통과 공감의 넓혀질 수 있도록 CMB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MB 대전방송 대표이사  
김태울

2018  
아카이빙  
작가

자연을 품고,  
그 자연의 신비로움을  
작품에 담은 나그네 시인

나그네

이정표 없는 십자로(十字路)  
풍운(風雲)에 실린 세월

촉루(燭淚) 멈춘 빈 술잔  
달그림자 문살 세고

목로집  
나그네 인연  
이슬 담은 뱃고동 소리

\* 1975. 01. 23 항도(港都) 부산(釜山)에서

# 장득춘

시조시인

## 생년 및 출생지

1938. 충청북도 진천군

## 출신학교

창인학원 법률학과 중퇴

## 등단

1973. 『자유신보』

## 문단 활동

계간 『미래문학』 회장 · 발행인 겸 편집인  
도서출판 미래문학 대표  
민족문학작가회의 대전 · 충남지회 고문  
(사)한국문인협회대전지회 회원  
(사)한국시조시인협회 회원  
대전시조시인협회 회원  
대전문인총연합회 회원  
가람문학회 회원

## 주요 경력

《중도일보》 · 보사공문사 특파원  
일간 『중합의약사』 충북지사장  
(주)천일제약 충청지사장  
『자유신보』 경북지사장

## 주요 저서

시조집  
『창가에 머문 달빛』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장득춘 시조시인의  
아카이빙 영상으로 연결됩니다.

### 작가의 꿈은 언제부터 가지게 되었고 그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대전에서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돌아다녔어요. 이렇게 대전을 돌아다니게 된 이유는 제가 문학을 좋아해서 다닌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지역 언론인으로서 다른 지역의 민속도 보고 시조나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해서 취재를 하다가 조금씩 문학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김형원이 쓴 작품을 책에서 읽게 되었는데, 그 작품이 「숨 쉬는 목내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나는 본다 숨 쉬는 목내이를, 정치라는 옷을 입히고 생활이라는 관에 넣은”이라는 시였어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짤막하면서도 아주 날카롭게 표현을 한 작품이었죠. 이 작품을 통해 짧게 쓰는 단시에 대한 큰 관심이 생겼고 후에는 제가 시조문학을 하고 쓰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대전에서 문단활동을 시작하신 계기에 대해 알려주세요.

제가 원래 고향은 진천 덕산인데 우리 부모님이 웅기점을 했어요. 웅기점을 하다가 덕산을 나와서 갯난아기 때 청주 청원군 남일면에서 웅기점과 기와공장을 했지요. 그렇게 부모님이 하시는 일에 따라 살다가 제가 1959년도에 대전의 신문사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대전에서 계속 살게 되었지요. 제가 대전에서 문단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그 당시 평송수련원에서 문학 강의를 열어줬어요. 사이버 문예대학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그 문학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서 <가람문학회> 회장이었던 이도현 시인을 만났죠. 그때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이도현 시인이 문학회에 입회 하라고 해서 <가람문학회>에 입회를 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문학회 활동을 하게 되었고, 계속 활동을 하다 보니 1999년도에는 <가람문학회> 회원들과 계간 『미래문학』 창간호를 만들게 되었어요. 제가 문단활동을 할 때 이도현 시인이 도움을 주면서 항상 같이 활동을 했는데 그런 관계가 없었으면 아마 대전에는 별로 인연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 도움으로 저에게는 낯선 곳이었던 대전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고 대전에서 문단활동도 하게 되었지요.

### 언론인으로 시작하셔서, 시조 시인으로 활동하신 계기와 등단작품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대전에 있는 신문사에 입사한 후로는 전국으로 취재를 다녔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취재 차 강릉에 가니까 너무나도 달이 좋았어요. 경포대로 달빛 구경을 가는 길에서 모래밭을 지나게 되었지요. 지나가다 바다와 백사장을 보니까 파도가 치면서 모래를 탁 쓸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 ‘모래에게 파도는 잠시 와서 스쳐 가는데 모래가 그 정을 못 잊고 그냥 날 데려가라고 데굴데굴 굴러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선 경포대에서 달을 보려고 올라갔더니 창창한 달인데 마치 등을 걸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거기서 다양한 달의 모습들이 다가왔습니다. 하늘에 걸린 달, 파도에 춤추는

달, 잔잔한 호수에 젖은 달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술을 한잔 마시려고 보니까 술잔에도 달이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 이 달들을 안고 술과 시에 취하고 취해보자.’ 생각했지요. 그 자리에서 시 한 수를 썼어요. 그런데 쓰고 보니까 시가 너무 짧은 겁니다. 숙소에 들어와서 저녁에 시를 다듬고, 살을 붙여서 『자유신보』에 「강릉 경포대」를 기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작품이 신문에 실리게 된 겁니다. 그때가 1971년이었어요. 지금이야 한 번에 등단이 되는데 옛날에는 세 번은 거쳐야 등단이 됐어요. 그래서 작품을 계속 써서 1973년도에 마지막 기고를 하고 등단을 했지요. 그때부터 문학기자로도 취재 활동을 다니게 되었어요. 문인들이 활동하는 곳으로 가서 취재하면서 오상득, 오상순, 구상 같은 문인들을 만나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언론인이지만 문인으로서 한번 길을 가보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시조에 전적으로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시조는 3장 6구 12음보. 석 줄에 여섯 구마다 음보 어절이 열두 개 입니다. 그래서 3장 6구 12음보면 45자 내외인데,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김형원 시인의 작품을 읽고 단시에 관심이 있던 차에 이게 참 좋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조를 쓰기로 마음을 먹고 시작했지요. 지금까지 거기에 정을 붙여서 하고 있어요. 제가 평소에 일기를 많이 씁니다. 그 일기를 시로 많이 썼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내가 이 책에 실린 작품들 그러니까 잡지나 동인지에 발표된 것만 책으로 냈지만, 미처 책에 못 실린 글들까지 합치면 지금 써놓은 것은 몇 천 페이지가 넘어요. 그런데 시는 ‘일물일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시를 창작하는 방법이요. 일등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시어에 제일 적합한 것, 그 하나가 제일 중요한데 쓰다가 보면 말이 안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 완성은 못하고 반씩 좀 초고로 하다 말은 것 그게 지금 꽤 쌓여있지요. 완성하지 못한 작품들이 쌓여있는 것들을 보면 내가 이제야 시인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맨 처음 김형원의 그 시를 읽으면서 그렇게 시인이 됐고 시상이 느껴진 것은 강릉 경포대에서 모래알이 굴러가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취미가 붙어버린 것이 지금까지 쓰게 되었군요.







**요즘 흔하게 접하기  
어려운 시조란  
무엇인가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시조를 쓰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시조는 작가마다 집필 방법이 다른데요, 방 안에 앉아서 머릿속으로 짜는 시조가 있어요. 생각해서 상상으로 만나는 시조, 그건 작품은 되지만 거짓말 시조예요. 구상 선생님이 “시조는 거짓말”이라고 하듯이 말이지요. 그러나 지금 제 책에 있는 작품에는 상상이 없습니다. 전부 제 일기입니다. 왜냐하면 작품을 진솔하게 쓰려면 발로 뛰어야 되거든요. 발로 뛰어서 그걸 보고 소재를 찾고 거기에서 시를 써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달을 보러 바닷가에 갔다가 보니까 백사장에 있는 모래알이 파도에 착 실렸다가 싹 쓸려갈 적에 그 모래알이 굴러가는 것을 봐야 제대로 된 상상이 나오는 거예요. “아, 파도와 잠깐의 인연을 못 잊어서 나를 데려가라고 막 굴러가는구나.” 라든지, 이 나무 밑에 앉으면 여름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거든. “아, 나무에 바람이 와서 노래를 불러 주니까 나뭇가지는 좋아서 춤을 덩실덩실 추는구나.” 그게 문학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이 작품을 쓰게 됐지요. 또 그것을 짧게 해서 군더더기 살을 빼고 알맹이만 갖다 빼만 추려놓은 것이 시조의 원 단시입니다. 사람들이 원 단시를 읽고 액세서리같이 생각을 쭉 붙여놓으면 놓을수록 좋은 작품성을 띄게 되지요. 그런데 다만 이렇게 주요 부분만 표현하게 되면 해석하기에 조금 난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독자가 생각할 몫을 줍니다. 약간씩이요. 작품의 단순함이 주는 난해성이더라도 어떻게 생각하든 모두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미래문학』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계간 『미래문학』은 1996년 시작을 하여 1999년 6월에 창간했습니다. 그때부터 『미래문학』을 이끌었어요. 문학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제가 언론에 있으면서 전 세계를 다니며 특파원으로서 근무하며 우리 이민자를 많이 만났는데 그걸 계기로 국제 문단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민자들을 만나러 가면 “고향에는 지금 뒷동산에 도라지꽃이 폈겠지요. 제가 떠나올 때는 울 밑에 감나무를 심어놔는데 지금은 주렁주렁 달렸을 겁니다.” 이렇게 고국을 그리워하는 이야기를 많이들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과 구국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국내를 넘어 국제 문단을 시작한 계기가 되었지요. 사람은 오고가지 못해도 우리 동포들의 작품을 책에 싣고 동포들끼리 서로 소식을 나누고 글과 작품을 공유해보고 싶었어요.

보통 『미래문학』 한 권이 350페이지 나옵니다. 이 책을 국외로 보내려면 미국하고 캐나다는 한 권에 항공 우편료가 34,000원, 아르헨티나와 호주는 37,000원~38,000원, 그리스·스페인·독일·러시아는 27,000원, 인도네시아와 중국은 17,000원, 또 일본은 16,000원으로 이렇게 비싼 우편료가 천만 원씩 들어가도 늘 제가 돈을 내고 회원들이 직접 조금씩 돈을 모아 시작을 했습니다. 힘들어도 왜 하는가 하면 우리 동포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다는 것, 또 그분들을 등단시켜서 우리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우리 동포들을 등단시킨 사람들이 현재 만 50명이 넘습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요. 이 국제문단을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미래문학』은 폐간시키지 않을 겁니다. 제가 작년에 아파서 올 겨울에 책을 못 냈어요. 그래서 잡지사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하면서 잡지사에게 “일 년에 페이지 수를 줄이더라도 폐간은 안 된다. 전 세계로 나가는 건 우리 100년 역사에, 문학 100년 역사에 이거 하나 유일한 것이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 연도 5월이나 6월 달에 『미래문학』을 계속 낼 겁니다 결코 쓰러지지 않아요.

**앞으로의 계획이나  
바람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앞으로 더욱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있던 옛날의 이민 1세 문인들이 다들 작고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어려움으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금 20년을 가고 있는데 어떤 수단으로든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나갈 겁니다. 우리 동포들을 생각해야 하니까요. 이 세상은 아담과 이브의 원죄를 받고 유배된 실낙원입니다. 저는 여기서 간단한 여행만 하고 가는 줄 알았는데 문학이라는 마지막 장식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선물을 하게 해주고 또 저에게 해주셔서 그게 참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대전의 문학은 더욱 커져갈 겁니다.



## 문학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작품에 녹인 시인

### 사랑과 영혼이 머무는 곳

인생의 능선 위에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현실  
모든 것이 흔들린다  
의식과 이성 사이에서  
존재의 기본 사상은  
정신과 물질  
그리고 빛의 어둠으로  
생명과 영혼을 가린다

‘나는 뭇인가’  
‘내가 설 곳은 어디인가’  
의미가 해체 붕괴되고  
선과 악의 경계선을  
표현의 기호로 그을 수 없는  
비뚤어진 공간 속에서  
당신의 보드라운 손길은  
언제나 사랑을 느끼게 하며  
나는 눈을 뜨고  
영원한 미로에서  
삶의 뚜렷한 목적과  
진정한 영혼의 의미를 찾고 싶다

# 임기원

시인

**생년 및 출생지**  
1946. 대전광역시

**출신학교**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방송통신대학교 졸업

**등단**  
1988. 『시와 시론』

**주요 경력**  
월간 『동양문학』 발행인  
월간 『문학공간』 회장  
한국 펜 대전위원회 부회장  
자유시인협회 회원  
한국문인협회 대전지회 회원  
대전문인총연합회 회원

**주요 저서**  
시집  
『사랑과 영혼이 머무는 곳』  
『구름은 흘러도』 (공저)

수필집  
『목적교』 (공저)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임기원 시인의  
아카이빙 영상으로 연결됩니다.



### 글을 쓰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문학도 모르고 법칙도 모르고 쉽게 이야기해서, 글을 쓰는 법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작문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글을 썼구나 하고 나 혼자 자찬을 했습니다. 그게 군대에 가기 전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군대에 다녀온 후, 문학은 이런 거구나 하고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문학은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때 고려대학교를 시험 봐서 합격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다니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염원이 있던 거예요. 제 나이가 지금 73세인데 다른 사람보다 두서너 살이 더 많았어요. 국민 학교를 7살에 들어갔거든요. 그 당시에 나 한 사람만 빼면 8살, 9살 10살인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보다 3년은 빠른 거예요.

가슴에 품었던 문학에 대한 열정은 결혼을 하고 나서 이뤄졌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대학을 못 간 게 한이 되어 34세에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문학을 하다 보니 송 선생님과 어울려 다니게 됐고 더 큰 욕심이 났고, 문학이라는 것을 잘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때 당시 당선을 하면 지금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그렇게 글을 쓰면서 박진하 선생님을 비롯해 우리나라 훌륭한 문인들과 만나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 유년 시절이 문학 활동의 바탕이 되었다고요?

14세에 가족을 부양하게 됐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여섯 식구인데 제가 형제 5명과 아버지까지 포함해서 6명을 보살피게 되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요. 그때부터 삶이 정말 이렇구나 하고 여러 가지로 와 닿는 게 많았어요. 그래도 묵묵히 하루에 한 끼로 여섯 식구가 먹고 살았어요. 저녁에 가족들은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삶의 고통을 겪다 보니 무언가를 찾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지요.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니 그게 문학이 된 거예요. 제 가슴에 닿는 시는 「눈 기르기」예요. 우리 회사에 이 작품을 제가 기증해서 걸어 놓았어요. 내가 꿈꾸는 게 무엇인가를 알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알아 달라고요. 산다는 건 별게 아니에요. 저는 6년 전에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죽었다 한 달 만에 깨어났어요. 그 후 신체의 반이 죽었어요. 아주 기가 막혀요. 눈과 손까지 절반이 마비됐어요. 그래도 저는 고마워해요. 이런 어려움들이 늘 문학 활동의 밑거름이 되고 있어요.

### 당시 문학계나 시대적 상황은 어땠나요?

그때는 보통 오후 3~4시 또는 5시 정도면 목척 다방에 문인들이 전부 모였습니다. 다함께 모여 일상 이야기나를 나누거나, 어떻게 하면 문학에 철학을 담은 좋은 작품을 쓸 수 있을지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계기가 마련되면 그곳이 어디든 야외로 많이 갔습니다. 합정리 저수지나 신탄진 강물이라든지



가서 모임을 하면서 대 여섯 명이 앉아 소주나 막걸리를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술 한 잔 씩 하면서 재미있게 문학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순수한 문학이었어요. 저는 늘 애정을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이번에 누가 작품을 썼는데 좋더라, 하면서 그 작품에 대해 이야기도 하고 그것이 끝나면 친구들과 모인다는지, 주로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니 문학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시대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표현을 안 하면서도 잘못된 부분을 비판하기도 하고, 스스로가 현재 상태에서 그것을 담지 못하는 마음 등을 막걸리 한 잔 술을 통해 내뿜어내고는 했어요.

### 문인 교류의 장이었던 목척교에 대한 특별한 기억은 무엇인가요?

목척교는 저뿐 아니고 대전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안겨주는 곳입니다. 각각 삶의 차원이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문학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이끌어준 곳이에요. 대전에 와서 보니 정말 더 좋은 거예요.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인다는 게 참 좋았어요. 그곳이 목척교이고 그중에서도 목척 다방이었습니다. 문학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곳으로 오면 문학이라는 게 좋은 거구나 생각할 수 있게 만들 정도로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저는 목척 다방에서 취미와 미덕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수필을 쓰기도 하는데, 수필을 쓰는 것의 본바탕도 삶의 목적과 미덕에 있습니다. 목척 다방은 저녁 때가 되면 발길이 자동적으로 가는 곳이었습니다. 매일 한 번씩 그곳에서 문인을 만나지 않으면 섭섭했어요. 그런 다방이 있을까요? 서울역이라든가 명동 등 몇 군데를 빼놓고는 문인들이



매일 와서 만나는 장소라는 것은 극히 드문 겁니다. 특히, 대전의 목척교가 왜 좋냐면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훈 선생님도 목척교 근처까지 걸어왔다가 끝나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저녁을 드시고는 하셨습니다. 삶의 파트를 목척 다방 아니면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문학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패턴을 목척 다방 아니고서는 이를 수가 없었죠. 목척 다방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정말 귀중하고 값지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소중한 곳이 가깝다는 것이 좋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산책로로 거기를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자연스럽게 목척 다방을 이용했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당시 국가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았었거든요.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먼 빛을 보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미래를 위해서 간 겁니다.

### 월간 『동양문학』의 발간 계기는 무엇인가요?

『동양문학』은 우리 한국을 넘어 동양에서 제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잡고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동양에서 시 한 편과 수필 한 편을 얻게 되더라도 보람되게 동양을 상대로 문학 활동을 펼친다는 것은 자랑스럽고 해볼 만한 작업이었습니다. 『동양문학』에서 우리가 동양의 폭넓은 사상을 다른 나라보다 높이 두고 동양이라는 지혜를 표면화된 글씨를 통해 발표해서 한번 국제사회에서 이념과 포부를 나타낼 수 있게끔 한 것이 굉장히 뜻 깊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회와 접목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힘을 쌓게 해 준다는 것,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현재는 갖지 못하지만

### 선생님의 삶에서 시는 어떤 의미 인가요?

그래도 이러한 것을 그 사람들이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굉장한 조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돈은 없지만 일 년에 한 번씩 『동양문학』에 작품을 실은 문인들과 공식 모임도 하며 보람되게 돈을 썼습니다. 그래도 하나 아쉬운 게 없어요. 돈을 내면서도 그만큼 가치가 있었거든요. 다만 그것을 충분히 지켜내지 못했다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시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하나의 보탬을 주는 것입니다. 깊은 뜻을 갖게 된 마음 속에서 사람은 추진력과 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화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시 한 편이라도 제대로 써볼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뜻을 가지고 실행을 하는 사람과 뜻을 갖지 않고 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 세상에 왔다가 갈 때 그래도 한 손에 뭔가를 하겠다는 각오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술만 마시며 세월을 보낼 수는 없는 일이지요. 우리는 누구든지 한 가지 뜻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것을 이루지 못했더라도 마음속으로 깊은 내면의 주인으로서 좋은 마음을 가진다면 언젠가 이를 수 있겠지요. 시는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몽골에 가서 시를 한 편 써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가 훌륭했어요. 시는 자신이 직접 발로 뛰어보고 같이 고민을 하고 그곳에서 배움을 받았을 때 스스로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남이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를 반드시 한번 성공을 해야겠다는 각오로 시를 다듬게 되고 만지고 더 다듬고 하다 보면 아마 좋은 시는 아니더라도 자기가 일생을 살면서 뜻깊은 시를 하나 썼다 하고 자부할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가 직접 손으로 만지고 발로 걸어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산이나 들이나 많은 사람들과 같이 바닷가 추억을 나누면서 그래도 뭔가 내가 왔다 갈 때는 가슴에 남는 추억을 만들기 위해 제 나름대로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후배 문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비록 가난하게 살기도 하지만 뜻은 깊습니다. 문학하면서 삶의 즐거움도 찾고 하는 것이지요. 좋은 작품을 쓰려고 하다 보니 학교도 다니고 대학과 대학원도 나오고, 문학은 좋은 겁니다. 문학을 하며 진리를 찾게 되고, 사람이 올바르게 살게 되고, 터득하고 본인에게 위안이 되기 때문이죠. 저는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도 후회되지 않습니다.



# 동심을 간직하고 자연을 노래하는 아동문학가

## 숲 속의 샘물

한 아름 가득  
담아놓은 하늘  
낮달 위에  
가재가  
그네를 탄다.

동동 꽃잎배를 띄우고  
솔바람이 놀다간 자리에  
물매암이가  
동그라미를 그린다.

숲 속에  
어둠이 깔리고  
도랑물 소리가 커지면  
별들이 내려와  
샘 속에서  
반짝인다.

# 유종슬

## 아동문학가

### 생년 및 출생지

1943. 충청남도 청양

### 출신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  
공주교육대학교 졸업  
공주사범학교 졸업

### 등단

1972. 『월간소년』  
1990. 『월간문학』

### 문단 활동

한국아동문학회 부회장  
충남(대전)아동문학회 창립회원  
한국문인협회 · 한국아동문학연구소 회원  
한국동요작사 · 작곡가협회 회원

### 주요 경력

초등학교 교사

### 주요 저서

동시집  
『꽃바람개비』, 『엄마가 불러주는 노래』

### 동화집

『우리는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 것이 최고야』

### 지도서

『엄마! 오늘 일기 뭘 써요』

### 체험수기

『땅을 치며 울지 말고 하늘 보며  
웃어보자』

### 상훈

대통령상, 황조근정훈장  
교육부장관상(5회)  
서울아동문학상, 대한민국동요대상  
천동아동문학상 본상 등



이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유종슬 아동문학가의  
인기이벤트 영상으로 연결됩니다.



### 등단 계기와 선생님의 작품에 대해 알려 주세요.

제가 현직 교사로 있으며, 어린이들 문예 지도를 열심히 해왔는데 어린이들을 통해서 나오는 작품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이들을 지도하며 저도 낙서를 하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어린이 작품들이 세상에 공개 되니 문인 선배들이 직접 작품을 써보라고 하는 권유가 꽤 많았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저는 몇 년 동안 ‘나는 어린이들보다도 작품을 잘 못 쓴다’, ‘그게 무슨 소리냐. 연습이라도 해라!’ 라고 말하며 지냈어요, 같이 연습하던 후배들이 점점 등단도 하고 해서 나도 등단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며 작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선배들의 인정을 받아 제 글이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동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동심은 모두가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중에도 이런 것이 있어요. 제 손자를 통해서 얻은 사상입니다. 어느 날 만 2년도 안 된 아이가 길을 가다가 개미를 보고 하는 행동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피약벌에 기어가는 개미를 보고 아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해를 등지고 앉는 거예요. 개미가 큰 나뭇잎을 자기 몸보다 10여 배 되는 물건을 물고 가고 있잖아요. 아이가 개미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면 개미가 얼마나 잘 가겠어요. 그런 것을 보고 예를 들면 뽕뽕 뽕뽕 뽕뽕에 개미가 커다란 먹이를 물고 기어가고 있다. 아기가 해를 등지고 앉았다. 그런 것이 사랑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글 안에 주로 담고 있는 이야기가 ‘생명 존귀성’입니다. 그래서 작품을 통해 생명 존귀성을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으로 태교에 관한 글도 썼고, 내가 어머니라면 어떤 바람이 들었는지 생각하며, 제가 어머니에게 ‘아,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의 생명체를 주셔서’라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쓴 것도 있습니다.

### 작품을 집필하실 때, 선생님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작품에 제목을 먼저 붙입니다. 글의 주제에 가까운 제목을 짓고 그리고 글을 씁니다. 글을 쓸 때는 우선 생각이 나는 대로 모두 씁니다. 글은 주로 동시를 쓰다 보니 축약시키는 기간은 어느 때는 한 작품에 한 달 이상 걸릴 때도 있고, 어떤 작품은 쓰고 보니 그대로 제 마음에 흡족한 작품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그 작품을 그대로 받아서 발표를 합니다.

저는 작가로서 특별한 기교나 자주 변화를 주며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한 작품을 가지고 오래 고민하며 글을 쓰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말을 뒤바꾸거나 느낌표를 넣느냐 마느냐 까지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한 획, 한 자라도 고민하며 노력을 하죠. 예를 들면 웅달샘이라는 글을 썼다면, 낮달 위에 가재가 그네를 타고 있다고 하면 보통 “가재가 그네를 타고 있다. 낮달 위에서” 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 글도 어떤 것이 좋을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또, 저는 제 작품이 그 아이들을 위한 시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른도 즐겨

읽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보다 동시가 사실은 쓰기 더 어렵습니다. 시를 쓰며 저도 고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어린이를 먼저 대상으로 생각하되 어른도 작품을 보며 ‘이건 나도 그랬는데, 나도 그럴 거야, 앞으로 이럴 거야.’ 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 아이들과 함께 하신 40년의 교직 생활에서 기억에 남는 일을 소개해주세요

제가 아이들을 직접 지도할 때의 일인데요. 청양 칠갑 초등학교는 아주 외진 곳에 있는 학교입니다. 어느 날 아이에게 “너 어제 학교 안 왔니”하고 물었더니 아침을 굶어서 못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아이들과 생활할 때, 마침 수업시간에 연못이라는 동시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날 비가 왔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10분 정도 관찰하게 하고 작품을 써보라 했더니 그 작품보다 아이들의 작품이 더 좋은 거예요. 그 아이들은 풀잎에 맺힌 이슬방울, 장미가시에 맺혀 있는 이슬방울까지 그려낸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야말로 천사들이다!’ 아이들의 작품을 읽으면서 ‘아이들의 글은 이렇구나!’하며 대단히 감명을 받았죠. 그 아이들과 생활을 하며 아이들의 작품을 중앙에 응모를 했는데 바로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 〈아동문학회〉와 『푸른 메아리』 창간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제가 속해 있는 〈아동문학회〉는 〈충남아동문학회〉부터 시작했죠. 그 당시에는 대전이 충남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충남에서 글을 좋아하는 특히 아동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모임을 처음에는 5~6명이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도 모임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성기 시백이 유명한 분이시죠. 대전사범 교사였고 그 제자들이 많았거든요. 저도 그 모임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처음부터 작가 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린이 작품 지도를 하다가 점점 글을 쓰고 싶어져서 활동하다가 그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아동문학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까지 여기 사무국장을 했고요. 사무국장 시절에 처음으로 우리가 1회 시화전을 했어요. 한 다방에 시화를 걸고 오는 분들에게 차 대접하면서 시를 감상하고 평을 했어요. 그런데, 시화를 한 사람에 한 작품을 낸 것이 아니라 두 작품 이상 내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이 시를 모두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과 다르게요. 그때만 해도 시를 살만한 사람들이 흔하지 않았어요. 그림이나 시 등의 작품은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성모초등학교 학부모임들께 시화전이 있으니 오셔서 보실 수 있게 안내를 드렸는데 직접 와서 보시고 마음에 들어 하시며 작품을 구입해 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직접 교통편이 불편하니까 작품을 어깨에 둘러매고 끈을 껴안고 그러고 다녔었죠. 그때 기금이 상상보다 더 많이 모여서 그것이 모태가 돼서 잡지를 만들게 된 거죠. 그게 지금의 『푸른 메아리』입니다.



### 선생님의 유년시절은 어땠나요?

저는 본래 고향이 두메산골이기 때문에 두메산골에서 자라며 물놀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얇은 냇물에서 같이 물장구치고 진흙을 온몸에 칠하고 지금 같으면 진흙 뺨을 했다고 할까요? 물새를 쫓아다니기도 하고 산새를 쫓아다니기도 하고 토끼도 만나서 쫓아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여우가 마을을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자연스럽게 자연 속에서 제가 자란 거죠. 도시 애들은 감히 상상도 못 할 일이지요. 더욱이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빛, 그리고 어두운 날에는 개똥벌레 즉, 반딧불이들이 다시 별님이 되어 내려와서 불을 밝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하나의 문학으로 볼 때에는 그게 하나의 싹이었고 또 장래에 글을 쓰는 사람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마당에 모닥불 피어 둔 곳에서 어머니의 옛날이야기를 들으면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하는 생각도 하고 어머니의 옛날이야기를 들려주는 음성이 서글퍼질 때는 나도 함께 눈물을 글썽이고, 어머니가 기쁨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때는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어머니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야말로 별님 중의 한 분이구나 착각할 정도로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 동시 외에도 작사를 하셨는데요, 1986년 작사한 동요 〈숲속을 걸어요〉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제가 본래 외진 산골 아이잖아요. 그때 아침 새벽에는 빠꾸기 노랫소리에 잠이 깨고, 피꼬리 노랫소리에 낮잠을 자고, 소쩍새 노래를 들으며 어머니 무릎베개 속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것보다 좋은 자연의 노래가 어디 있습니까? 1985년에 그게 처음 노래로 됐는데 그 당시 재직했던 초등학교 뒤가 숲이었어요. 서울 리라초등학교인데, 그 뒤가 숲이었어요. 마침 산에서 새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이거 한 번 써보자!'라고 쓰는데 고향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숲 속을 걸어 보자 하며 〈숲속을 걸어요〉동요가 나오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임은주 교감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곡을 갖다 드렸더니 "이거 마음에 든다!" 하며 그 자리에서 오르간으로 작곡을 하셨어요. 그리고 개인 동요곡집에 실었는데, 그것은 리듬이 약간 민속적이었어요. 그 곡을 보고 현재 부르고 있는 노래로 다른 분이 또 작곡을 했어요. 〈숲 속을 걸어요〉동요는 어린이뿐 아니라 청소년들도 즐겨 부르고 과분한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이 노래 자체가 끝맺음이 "웃음 띤 얼굴로 우리 모두 숲 속을 걸어요, 정다운 얼굴로 우리 모두 숲 속을 걸어요"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숲을 맹목적으로 걷는 것보다 둘이 손잡고 웃으면서 걷는데 웃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모두가 기쁘거나 기쁜 일이 있어야 되겠죠? 또 화가 나더라도 웃으면 그게 스트레스가 해소되겠죠? 정다운 얼굴로 걷자, 정다운 얼굴이 될 수밖에 없죠. 아마 청춘남녀였다면 애인으로 발전해 결혼까지 할지 모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길 바랐는데, 마침 그게 영향이 돼서 다른 나라에서도 더러 부릅니다.

### 자연과 관련된 작품을 많이 집필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문산은 저한테는 추억이 담겨있는 곳입니다. 대전에 있을 때 가끔 와봤던 곳이 산에 올라가서 자연을 음미할 수 있는 곳이지요. 제가 본래 글을 쓰는 생각 자체가 '자연을 닮고 싶다.' 하는 것이거든요. 화가들도 자연 그대로 그려내고 싶지만 그리지 못하잖아요. 자연 그대로를 글로 표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인간도 자연의 하나잖아요. 풀과 나무 심지어는 땅 속에 있는 두더지도 다 자연이고, 심지어 우리가 보았지만 귀뚜라미 노랫소리도 심금을 울리잖아요. 노래를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제가 슬플 때는 귀뚜라미 노래도 저를 눈물을 흘리게 하고 기쁠 때는 귀뚜라미 노래에 환호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 자연이 얼마나 좋습니까. 처음에는 습작을 할 때는 자연을 가지고 서툰 그림 그리듯이 그랬죠. 그런데 점점 나름대로 습작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인생에 꿈과 사랑도 넣어야 되겠다.' 나무 한 그루, 풀 한그루도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을 살려내서 그 소중함을 알고 아낄 줄 아는 사람, 사람으로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 후배 문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문학도 하나의 카타르시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문학에다 적어도 너무 서두르지 말자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빨리 달리면 앞에 있는 작은 것도 보이지 않잖습니까. 천천히 그리고 좌우를 돌아보면서 어떤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참을 찾고 거기다가 자신의 혼을 불어넣어서 누가 봐도 나만 힘차지 말고 독자들에게도 영감과 소속감과 또 나름대로 동질감을 느껴서 동화되는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꽃으로 피어나고 영혼의 꽃으로 피어나서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면 천당에 가서라도 꽃을 피우는 작품을 쓰길 바랍니다.



## 냉철한 이성과 깊은 내면의 감수성이 공존하는 소설가

자주색 라일락의 꽃내음을 맡으면 난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다른 꽃들처럼 크게 화사하지도 않으면서 은은한 향기는 내게 떠나가신 어머니를 생각게 합니다. 살아 생전에 어머니는 늘 검소하셨습니다. 떨어진 양말 한 짝도 쉽게 버리지를 못하셨습니다.

물론, 그 당시 어머니의 세월은 기나긴 가난의 세월이긴 했어도, 어머니는 가난 때문에 떨어진 옷가지 하나를 마음대로 버리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식구들의 따스한 체온이 배어 있는 옷이었기에, 가족들의 숨결이 묻어 있는 정이 든 물건이었기에 당신은 섣불리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비록 그것이 당신의 희생이요, 아물지 않는 상처요, 인고의 세월이었다 할지라도 끝내는 버려야 할 하찮은 물건까지도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느 자식치고 제 부모를 자랑하지 않는 자 있겠습니까마는 정말이지 나의 어머니는 당신이 하고 싶으셨던 것 모두 뒤로 물리치고 오직 자신들만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가, 또한 자식들만을 위하여 떠나셨습니다.

팔 남매 중 막내 아들인 제게 그렇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어머니, 부모의 도리는 오직 희생만이 가장 큰 미덕이요, 순리라고 실천으로 보여주신 어머니가 아니셨습니까.

그 흔해빠진 천렵 한 번 제대로 다니지도 않으시고 널브러진 생선 한 토막 마음 놓고 잡수시지 않던 어머니. 그제 자식에 대한 끝없는 모정인 줄을 제가 알기도 전에 어머니는 한 마리 학이 되어 아버지 따라 훌훌 떠나셨습니다. (...중략...)

검던 머리칼에 희끗희끗 백발이 보이고, 이마에 주름이 그어지기 시작하고, 생활에 쪼들림 이 나타나기 때문인가요. 살아 계실 때 효도 한 번 크게 받아 보시지 못하고 떠나신 어머니께 나의 소리내어 우는 울음이 진정 사죄가 된다면 한없이 울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어머님!

어머니가 누워계신 산중턱 마루에다 어머니를 닮은 라일락을 심고 싶습니다. 살아 생전 그 큰 뜻이 한 그루 라일락에서 피는 꽃향이 되어서 온 세상에 퍼질 때 저는 그 향기를 맡으며 어머니 품 속에서 일곱 살로 태어나 싸근싸근 잠들고 싶은 마음도 일어납니다.

살아 생전에 고생만 시키다가 떠나신 후에 이제사 철이 든 이 못난 자식은 어머니께 영원한 불 효자입니다.

\_ 『라일락 꽃가지에 초승달도 잠을 깨고』 중에서

## 박권하

소설가

### 생년 및 출생지

1945. 충청북도 영동군

### 출신학교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학) 졸업

### 등단

1979. 수필집 『꿈꾸는 발레리나』  
1994. 단편소설 『바람은 불어도 여자는 울지 않는다』

### 문단 활동

대전충남 수필문학회 회장  
대전문인총연합회 회원  
『영동문학』 동인

### 주요 경력

중등학교 교사

### 주요 저서

수필집  
『꿈꾸는 발레리나』, 『윤희의 계절』,  
『침묵의 겨울 바다』, 『새벽의 강』,  
『라일락 꽃가지에 초승달도 잠을 깨고』,  
『한 송이 수선화 같은 이름으로』

### 장편소설

『유경』, 『지중해』, 『아우토반』,  
『화색갈매기』, 『섬진강』, 『화심』,  
『버리』, 『눈꽃을 줍다』,  
『천국에서 길을 잃다』

### 상훈

오늘의 문학 소설부분 신인작품상  
문화부문 대일 비호대상, 대전광역시 문화상  
대전광역시 자랑스런 서구인상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박권하 소설가의  
아카이빙 영상으로 연결됩니다.

### 작가의 꿈은 언제부터 갖게 되셨어요?

문학은 내 삶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젊은 시절 문학에 대한 호기심이 많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김정환 작가의 「사하춘」, 모운숙 작가의 「렌의 애가」 등의 작품이 문학을 하는 기저가 되었고 발판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가면서 진로가 바뀌었어요. 대학에서는 물리학을 전공했거든요. 미국의 대학에서는 물리교육학을 공부했어요. 그동안도 문학의 끈을 놓지 못하고 고등학교 시절엔 교내 신문에 글을 발표하고 대학시절에도 대학 신문에 10여 편의 글을 발표했었어요. 그러다가 글을 써보고 싶다는 마음에 계속 글을 썼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수필집 6권, 장편소설 17권, 대전에서 발간되는 각종 신문에 700회 정도 연재, 콩트, 논단 등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인간관계를 상당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제가 쓴 작품은 여러 종류의 소설 즉 부피로 말하면 단편 소설, 중편 소설, 장편 소설이 있고 장르에 따라 통속 소설, 계몽 소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통속 소설에 속한 소설을 주로 쓰고 있어요. 남녀관계의 애증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 소설은 거의가 다 인간관계에서 신의, 믿음, 약속 등을 중시할 수 있도록 소설을 쓰고 있어요. 이번 책은 남녀 관계에서 발전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 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영감은 주로 어디서 얻으시나요?

제가 사실은 대학교 때부터 여행을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방학 때는 거의 국내여행을 다니고 사회인이 되어서는 외국여행을 다녔는데 지금까지 170개국 정도를 다녔어요. 세계여행을요. 여행기에서 얻은 영감이 소설의 기초가 된 것이지요. 보통 제 소설은 거의 다 80% 정도 이상이 여행지에서 일어난 일들을 엮은 거예요. 영감은 여행지에서 얻고 심지어 이집트 같은 곳은 장편 소설을 쓰기 위해서 두 번이나 같은 지역을 갔었어요. 이렇게 여행지에서 많은 영감을 얻고 있어요.



### 여행을 다니며 어떻게 글을 쓰는지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은 타향에 대한 지식이고 고향에 대한 애착이며 자신에 대한 발견이다.” 라는 말은 인도의 철학자 브하그완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예요. 사실 그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자신에 대한 발견 혹은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것이죠. 여행을 왜 가는지 묻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여행은 여기와는 다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장소가 같으면 안 가게 되거든요. 다르기 때문이에요. 가서 무엇인가를 느끼고 느낀 바를 실제로 옮기면 여행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된 거고 달성이 된 것이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여행을 가다 보니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되고 그 사건들을 묶어서 가상의 인물을 세워 글로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의 여행 후기로 소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 여행을 다니며 집필한 작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무엇인가요?

많이 있지요. 소설로서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요. 예를 들어서 소설에도 조금 나오기는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여행지의 호텔에 틀니를 두고 와서 한국에 보내달라고 했더니 틀니만 오고 여행객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이 유품이 왔다고 하며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고가의 카메라를 잃어버려서 여행 내내 울상을 짓는 여행객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사건화가 돼서 장편 소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장편 소설과 단편 소설의 모든 소설에는 인물, 사건, 배경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소설 속에 녹여서 하나의 소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나간 소설은 「유경」이라는 작품으로 ‘유경’은 사실은 사람 이름이에요.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신유경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 인생을 재조명 하는데 독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제 소설은 조금 슬픈 쪽으로 간다고 해요. 두 사람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인생에 대해 토로하고 앞날에 대해 걱정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맺어지지 못하고 헤어지는 그런 내용이 제 소설에는 많이 담겨있어요.





### 수필과 소설을 집필하시면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에 자신의 생각을 가미해서 나타내는 것이고 소설은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죠. 제가 글을 써보니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제 소설은 절반 정도는 실화에요. 실화에 어떤 사건을 함께 넣는 거예요. 실화에 실제로 나온 사람이 30대라면 제 소설에서는 40대로 변장을 한다든가 그 사람이 손을 잡았다고 하면 제 소설에는 더 깊은 관계까지 간다든가 하며 소설의 내용을 만드는 거죠. 상상의 나래를 펴서 하나의 내용을 넣은 예술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 선생님께서 문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영향을 준 사람과 작품은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때 김정한 작가의 소설 중에서 『사하도』, 『모래톱 이야기』 등을 그 당시에 읽었어요. 물론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 도서관이 없었습니다. 친구들 집에 놀러 갔을 때 그런 책들을 빌려보곤 했는데 그때 글의 표현들이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그때부터 생각을 했는데 쓰기는 한참 후에 썼죠. 물론 그때도 그런 것들에 대한 단상이라든가 생각을 써서 고등학교 신문에 발표를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것이 제가 글을 쓰게 된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모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중요한 표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어이고 국어에서 글로 표현한다는 것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힘의 작용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필을 썼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수필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관조하며 써야 하는데, 사실 저는 거꾸로 쓴 거죠. 장편 소설을 먼저 썼어야 하는데 수필을 먼저 쓰고 장편 소설은 나중에 쓴 겁니다. 역시 표현의 문제 때문에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 글을 쓰게 된 계기와 첫 작품을 소개 해주신다면?

글은 자신의 감정이나 정서를 상상의 힘을 빌려 문자로 나타내는 예술입니다. 그것이 문화이고, 문학이고 표현입니다. 자신의 표현이 상대방에게 100% 전달될 수 있게 하려면 상당히 많은 연습과 노력과 기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학을 하고 문학 중에서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의 첫 작품은 1979년에 발간한 수필집 『꿈꾸는 발레리나』라는 책인데, 그때는 외국을 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 대만을 갔다 왔어요. 그 책의 앞부분은 수필이고 뒷부분은 기행문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것이 발행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놀랐다고 해요. 제가 물리학을 했는데 국어 교사도 아닌데 그런 책을 냈다는 것이지요. 그 책에 외국을 다녀온 기행문이 실려 있고 또, 몇 분의 말을 빌려보면 상당히 표현력이 좋았다는 부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읽어보니 표현력이 좋다는 것은 칭찬해 주는 것이었고, 제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표현력이 잘 되지 않은 부분도 눈에 띄더라고요.

###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을 꼽자면 무엇인가요?

제가 쓴 작품은 다 애착이 가지요. 그중에서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하리아 사막에서 품은 별』입니다. 처음에는 여행 인솔자로 갔었고, 두 번째는 다시 가보고 싶어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많은 현장 조사를 하고 체험을 하고 바하리아 사막 텐트 속에서 하룻밤을 자며 밤하늘의 별을 보고 사막여우도 보며 경험을 통해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쓴 책이 『바하리아 사막에서 품은 별』입니다. 다른 작품도 애착이 가지만 그중 한 권을 꼽으라면 가장 많이 애착이 가는 책이에요. 그런데 저는 글이 쉽게 써진 적은 없습니다. 고뇌하며 쓰고, 생각하면 고쳐지고, 생각하면 또 다른 생각이 나고 그래서 보통 300페이지 정도를 쓰려면 20페이지 정도 앞뒤로 여유가 있는데, 300페이지를 썼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보니 중복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지워야 하잖아요. 지우고 나면 또 메워야 하고요. 메우다 보니 불필요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또 나오게 되니 지워야 하고 하는 반복된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쉽게 쓰인 작품은 없는 것 같아요.

### 글을 쓰며 가장 행복했을 때는 언제였나요?

제가 특별히 작가 수업을 받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고달프긴 했지만 그래도 제 생각이 상상의 힘을 빌려서 문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책이 되어 나왔을 때 그때 행복감을 느꼈고, 독자들이 제 글을 읽고 격려해주었을 때 물론 격려가 다 칭찬만은 아니에요. 이러한 점은 고쳤으면 좋겠다고 해요. 사실 처음에는 지적을 받으면 기분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지적이 나중에 커다란 밑거름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느낀 바를 바르고 아름답게 글로 표현되어있을 때 가장 행복을 느꼈어요. 사실은 그게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고 안 되면 되도록 시정도 해야 하고 그래도 나중에 또 읽어보면 제 스스로 만족한 글이 되었을 때 가장 행복을 느꼈어요.

### 앞으로 쓰고 싶은 주제는?

장편소설의 세부적인 장르가 많이 있어요. 계몽 소설도 있고 최근에는 환상 소설이라는 것도 나오고 소설 속에 소설이 들어있는 액자 소설도 있고요. 저는 통속 소설 중에서 남녀의 애증관계를 그리기 때문에 그것이 좀 더 자신의 의견을 뚜렷이 이야기하고 자신의 생활에서 조금 더 진보된 삶을 살고, 남녀로 살며 자신의 주장을 뚜렷이 펼 수 있는 그런 문학을 그려보고 싶어요. 작가의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 전에 보고 만났던 정치와 사람,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작품이 또 구상되고 그것이 만들어 질 거예요.

## 문학적 감각이 돋보이는 첫 세대 여성평론가

만인의 신도 자신만의 신도를 갖지 못한 채 시대의 아픔을 몸과 마음으로 고스란히 겪어야 했던 비극적 시인 이상, 그의 삶과 예술은 그 자체가 남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던 근대화의 일그러진 얼굴이요, 식민 시대의 모순이었다. 그림, 시, 산문에 대한 열정과 뛰어난 두뇌의 소유자가 선각자로서 자의식까지 갖추었으나 시대는 그런 한 지성인의 의지를 받아들이지 수 없는 식민지 상황이었다. 한일 합방이 되던 해 (1910)에 태어나 소년 시절에 3.1운동을 겪고 각성을 할 나이에 군국주의의 극심한 통제 속에 놓였던 그는 바로 앞 시대의 느슨한 문화 정책에 대한 피해자이기도 했다. 카프문학의 대두와 그에 따른 검거는 저항문학이 설 자리를 빼앗아 갔기 때문이다.

순수문학만이 살아남던 시대, 그러나 그의 문학은 앞선 이광수나 김동인과 또 다른 차원에 속한다. 이광수의 계몽주의적 사실주의나 그보다 한 차원 더 리얼해지려 했던 김동인의 자연주의 문학을 그는 그대로 답습하려 들지 않았다. 다른 나라에 눈을 돌리고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 보려던 각성이 그의 실험을 낳게 한다. 자신의 실험지 〈오감도〉가 독자의 항의로 연재를 중단했을 때, 그는 남들은 저 만큼 가는데 왜 우리는 언제까지나 그대로 머물 것이냐고 섭섭해했고, 동생 옥희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올림픽을 보며 우리도 남에게 뒤지지 않아야 한다고 썼으며 마지막에 병든 몸으로 일본 땅을 밟을 때도 뭔가 더 배워 보려 했다.

『출구 없는 반쪽-이상의 모더니즘』 중에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권택영 문학평론가의  
아카이빙 영상으로 연결됩니다.

## 권택영

문학평론가

### 생년 및 출생지

1947. 대전광역시

### 출신학교

경희대학교 영어영문학 학사·석사 졸업  
네브래스카 대학교 영문학 석·박사 졸업

### 등단

1986. 『외국문학』

### 문단 활동

미국소설학회 회장  
한국시인협회·충남시인협회 회원  
대전시인협회 회원  
동서문학·리틀룸 편집위원

### 주요 경력

경희대학교 문과대학 영어학부 교수·명예교수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한국아메리카학회 회장

### 주요 저서

평론집  
『다문화시대의 글쓰기』

### 비평이론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  
『후기 구조주의 문학론』 외 다수

### 소설집

『사랑의 의지』

### 번역집

『어느 망명작가의 참 인생』  
『아성의 부름』 외 다수

### 주요 경력

문예진흥원 우수저작상  
올해의 경희인상  
제9회 김환태 평론대상



### 문학을 하며 정신분석학에 관심을 보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주로 관심을 가진 심리학·정신분석가는 프로이트와 라캉입니다. 프로이트는 인문학자이면서 자연과학자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기 때문에 인문학이건 자연과학이건 다 마음에서 나오니까 결국은 하나잖아요. 그 프로이트가 인문학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큼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뿌리가 되는 거였거든요.

제가 대학원에서 프로이트 원문을 강의할 때 학생들이 바로 자기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특히 연애를 하거나 사랑에 빠졌을 때 그 심리를 분석하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자기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대학원생들에게 제 기억으로는 대학원 강의를 쉬지 않고 빠지 않고 했었는데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3학기를 수강하길 원해서 연속으로 강의했습니다. 그만큼 프로이트는 재미있고 또 글이 어렵지 않아요. 프로이트는 이렇게 인문학과 정신분석이라는 자연과학, 의학을 다 통합해서 아우른 사람이에요. 프로이트 자신이요. 그래서 통섭과 융합의 가장 기본을 보였죠.

### 선생님께서 문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영향을 준 사람이나 작품이 있나요?

저는요, 특별한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기에는 영향을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가장 많은 것은 문학 소설가, 시인일 것 같아요. 레프 톨스토이, 미국 문학에서는 어니스트 헤밍웨이, 윌리엄 포크너,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헨리 제임스 등 대가들의 작품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영향을 준 문인들이 너무 많았고, 소설가에게 어려서부터 더 큰 영향을 받았고요. 정신분석은 학생들 가르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해하면서 학문의 뿌리로 공부한 거죠. 만약에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소설을 썼다면 분리돼 있을 수도 있지만 공부하는 것 하고 글을 쓰는 것 하고는 분리가 안 되니까 그 영역이 바로 문학 평론이었던 것 같아요. 평론을 하면서 문학작품도 읽고, 프로이트든 헤체론이든 여러 가지 현상학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뿌리로 이런 이론들을 눈으로 보고 했기 때문에 그게 전혀 분리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창작을 했더라면 조금은 달랐겠죠. 문학평론은 공부하는 것 하고 학문적인 것 하고 관련이 깊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는 안 했던 것 같아요.

### 선생님의 작품 중,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출판하면 제게는 먼저 한국이겠죠. 1990년에 민음사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와 『후기 구조주의 인문학 이론』을 펴냈는데 그 책들이 그 당시 인문학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포스트모더니즘에 소개도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너무 어렸을 때 베스트셀러가 돼서 어리둥절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엄청나게 힘든 거였구나.’하는 생각도 들고, 돌아해보면 그때가 제 전성기였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에 와서는 제가 다시 영어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 선생님의 내적 에너지의 원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상당히 모험이었죠. 인문학에서 유명한 국제저널에 실린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였어요. 그렇게 방향을 돌리면서 10년이 끝날 즈음해서 국제 유명저널에 제 글이 게재가 됐어요. 그 글은 나보코프와 프로이트의 기억 전쟁이라는 제목이에요. 나보코프가 책마다 서문에서 프로이트를 비판하는데 그 동안 많은 평론가들이 조금씩 언급은 하며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저는 기억에 관한 것으로 좁혀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갔어요. 15년 만에 나온 거예요. 영어로 쓰기 시작해서요. 그동안 국제저널에서 수없이 거부됐죠. 참 고난의 세월이었는데 이 책을 쓰고 느낀 외로움은 이게 한국에 있는 교수가 영어로 쓰다 보니까 미국의 학회와의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학문공동체로 있으면서 책도 선전하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없고, 한국에서는 영문학이나 프로이트가 제2외국어, 제2문학이니까 상대적으로 깊이 있게 하지를 았다 보니 또 소외되고, 그래서 그 시도라는 것이 엄청나게 힘이 들었지만 이러한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온 게 1980년이에요. 8월에 왔는데 그때 국문학 평론을 하시는 분이 저에게 한국문학 평론을 할 생각이 없는가 하셨어요. 그 질문에 제 첫 대답은 미국 문학인 제 전공도 제대로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한국문학을 하나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결국은 이청준 소설을 보다가 매료되면서 1986년에 『이청준 소설의 중층구조』라는 글로 문단에 데뷔를 한 거죠. 그때부터는 한국 문학 속에 참여를 하게 됐고 언제 제가 그런 소리를 했나 싶을 정도로 우리 문학을 열심히 읽고 평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예지나 신문에 월평, 서평, 책저서 소개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활동을 했던 1990년대 10년은 거의 청탁 원고 속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 때 달력을 보면 새까맣게 언제까지 어디라고 쓰여있어요. 그 당시는 평론이 상당히 권위 있는 분야였어요. 여자가 거의 없었고 평론이 우리 문단에서 영향력이 클 때입니다. 가장 좋았던 시기에 운이 좋게 그런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제 일생에서 돌이켜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잘 몰랐을지 모르지만 돌이켜보면요. 그리고 1997년에 문학사상사에서 김완테 평론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상에 제가 선정돼서 수상을 한 거죠. 미국에서 책의 출판이라는 것이 15년간 영어로 투고의 결실이었다면 한국문학평론에서는 이 수상이 결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라는 것은 되어 가는 것이지 자기가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보이지 않는 신의 손이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된 거지 원천은 아마 사랑이겠죠. 좋아한다는 사랑, 첫째로 문학을 좋아한다는 거고 문학과 관련된 일이니까 사랑한 거죠. 그게 원천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등단을 하게 된 계기와 첫 작품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한국문학을 처음 접하면서 제가 좋았던 것이 이청준 선생님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등단한 작품도 「이청준 소설의 중층구조」였죠. 그 분이 갖고 있는 독특한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겹, 세 겹으로 화자가 겹 시선, 속 시선으로 나뉘있는 부분이 재미있었고 그 분의 필체가 남성 작가지만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럽고요. 그래서 순전히 그분 작품을 읽다가 좋아서 중층구조를 테마로 해서 썼어요. 그때 문예지에 그 글이 실리면서 그게 1986년, 제가 그때 버클리 대학에 안식년으로 반년을 갔는데 거기에서 실린 잡지를 받았던 기억이 생생해요. 그래서 돌아왔을 때 이청준 선생님을 뵈는데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제 글에 대해서요. 그러면서 우리 문학을 많이 더 읽고 평론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아마 제가 외국문학에서 한국문학으로 주소를 옮기게 된 계기였다고 보여요. 그 당시에는요, 지금 하고 달라서 문인도 적었고 또 잡지도 많지 않았고요. 문예지도요. 신문도 많지 않았고 신문의 면수도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론가의 영향력도 컸고 문인들의 대부분이 술을 마시면서 술에 취했을 때 현실을 잊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학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현실 도피거든요. 현실에서 이를 수 없는 것, 현실에서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반영된 것이 문학이니까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문인들이 술을 즐겼고 저도 문인들과 같이 제 인생에 있어 가장 많이 술을 마신 시기로 기억되고 있어요. 그것이 굉장한 낭만이었어요. 지금의 오늘날은 글 쓰는 스타일도 다르고, 등단할 수 있는 방법도 많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낭만은 조금 없지 않나 싶어요. 그런 부분이 참 아쉬워요.

### 많은 작품들 중 스스로 뽑는 최고의 작품은 무엇인가요?

책을 내면서 그 경험이나 지식이 넓어져요. 점점. 깊어지고 넓어져서 그래서 앞선 책들이 그다음 책에 연결이 됩니다. 다른 주제라 할지라도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일 소중한 건 마지막 책일 것 같아요. 제일 마지막 책은 그 이전까지의 모든 경험들이 그 속에 용해가 돼 있으니까. 또 하나는 제가 2000년부터 영어로 쓰기 시작하면서 작년에 미국에서 영어로 쓴 책이 출판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정신적으로요. 이유는 왜 이걸 하나 하는 의미와 독자의 반응이 없는 어떤 연구를 계속한다는 것에 대한 허망함 때문이었어요 그때 너무 우리 글이 쓰고 싶었어요. 2015년부터 쓴 글입니다. 지난 7월에 나온 『생각의 속임수』예요. 이 책에는 유학 시절과 그 이전의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부터 그 경험이 그 속에 다 녹아있어요. 지금까지 해온 문학, 철학, 현상학, 또 무슨 뇌과학, 심리학이 다 녹아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수필 식으로 썼지만 모든 게 용해된 책이고 무엇보다도 우리글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가를 다시 느꼈어요. 영어를 하다가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 글을 쓸 때요. 그리고 다시 독자들이 내 글을 좋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어쨌든 가장 포괄적으로 함축이 된 그런 책이죠.

### 글을 쓰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때는 방학 숙제로 세계문인사전을 만들었어요. 제가 책으로요. 그러면서 그 당시 제 나이가 세계 유명한 문인들보다 어렸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다 안 맞지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대전은 아마 저에게는 마음의 고향이죠. 서울에 있는 동안은 대전이 고향이고 미국에 가 있으면 한국이 고향이고요. 그래서 늘 눈 감으면 골목, 학교가 떠올라요. 특히 고등학교 때는 제가 문학하고 시도 쓰고 문학인으로서의 꿈 하고 공부했던 것 2가지. 학창 시절이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대전여고 때요. 그때가 늘 그리워요. 제가 문학을 좋아하고 문학에 관한 소개된 뿌리, 이게 대전에 있었던 거죠.

### 앞으로의 쓰고 싶은 글은 무엇인가요?

어깨에 힘 빼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욕심 크게 내지 말고 편안하게 글뿐만 아니라 선을 볼 때도 그렇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그렇고요. 살아가면서 어깨에 힘 빼고 사는 거. 그게 어렵지만 참 필요한 거고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많죠. 그때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계속 자기 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 그러면 실망했던 일이 어떤 순간에는 보답이 있고요. 너무 평범하죠? 어깨에서 힘 빼는 것이 참 중요하죠. 제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날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뭔가 한다면 자기 것을 하고 싶은, 우리글을 쓰는 것이 얼마나 좋고 편안하고 좋은지를 깨달아서 앞으로도 우리글을 쓰고 싶어요. 감히 제가 소설을 쓸 수 있을까, 마음은 그래요.





## 문학적 초월주의자이며 포용의 평론가

80년대로 넘어오면서 우리 문학 사회에서 가장 현저한 양상으로 돌아나는 것이 무크-동인지의 발행 붐이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단행본형의 잡지 혹은 잡지형의 단행본으로서, 특집만으로 구성된 종합 문학지형으로 편집이 되든, 이른바 무크지로 표방하여 발행되는 경우와, 기존이든 새로이 조직이 되었던 동인 운동임을 천명하면서도 가량 60년대식의 폐쇄적인 작품집임을 지양하고 의도된 기획으로 잡지적 체제를 갖춘 또다른 경우가 뭉쳐진 것인데, 79년 『실천문학』이 창간되어 그 효시를 이룬 이후, 84년 1월 『마당』지에 수록된 선언문의 건수로 헤아리면 34종이란 엄청난 숫자에 이르고 있다. (...중략...)

그렇다면 이 같은 무크-동인지의 출판 붐이 가능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이미 매스컴에서의 잦은 보도와 논평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그것은 i) 80년 여름에 돌연히 폐간된 두 계간지가 남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그리고 ii) 기성의 잔유된 문학지와 현재에도 왕성하게 출판되고 있는 문학 단행본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한계와 미흡감 때문에, iii) 잡지의 등록이 용이하지 않으며, 설령 등록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무크-동인지를 발행하는 개체로 젊은 영세 출판사들로서는 정기 간행물 발행이 짊어져야 할 여러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iv) 따라서 무크-동인지는 잡지가 아님으로 해서 가질 수 있는 발행상의 여러 이점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등등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상당수의 무크-동인지는 그 평가의 방향이 어떻든, 그와의 관계 심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든지간에, 70년대의 계간지에 대한 의식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실제의 기획·편성·체제 및 작품 게재 방법 등 편집과 제작의 중요 측면에서, 보다 진전된 양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앞시대의 계간지 방식을 수용하고 있다. (...중략...) 그럼에도, 80년대의 무크-동인지 현상을 70년대 계간지의 대체물로서나 출판 붐을 타고 시도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유행물이란 소극적인 접근으로는 이 현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80년대를 무크지 시대로 자임·거부하는 젊은 동인들의 천명에서 볼 수 있듯이, 그것은 80년대의 시대적 증상의 불가피한 한 표현으로 읽을 수 있는 근거를 그것들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무크-동인지들의 성격과 의미를 검토해보면 그것은 분명해지는데, 그것은 80년대의 어떤 징조를 드러내 주는 것이기도 하다.

『80년대 문학의 천착』 중에서

## 김병익

문학평론가

### 생년 및 출생지

1938. 경상북도 상주

### 출신학교

대전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등단

1967. 『사상계』

### 문단 활동

『68문학』 동인 참여  
계간 『문학과 지성』 창간

### 주요 경력

《동아일보》 문화부 기자  
『문학과 지성』 창간  
한국기자협회 회장  
문학과지성사 대표 · 상임고문  
출판연구소 이사장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 주요 저서

평론집  
『한국 문단사』, 『한국 문학의 의식』  
『상황과 상상력』, 외 다수

### 산문집

『지성과 반지성』  
『지식인됨의 괴로움』

### 번역집

『동물농장』, 『1984년』, 『기탄잘리』

### 상훈

현대문학상 평론상, 대한민국문화예술상  
대한민국문학상, 대한민국 국민훈장 모란장  
대산문학상 평론부문상, 보관문화훈장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김병익 문학평론가의  
아카이빙 영상으로 연결됩니다.





### 기자로 활동하며 문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사건이라기보다는, 그냥 우연 혹은 우발적이라고 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제가 명색이 대학은 정치학을 전공하며 문학하는 친구를 많이 사귀었어요. 아주 친하게 지냈지요. 그 후 신문사에 들어가며 문화부에 배치되고 문학을 담당하면서 문학하는 친구들이 제 주변에 있으니까 저절로 친구들이 동원된 셈이죠. 기자생활 3년 동안 『사상계』 글을 청탁 받고 글을 쓰게 된 것이 문학이라는 길을 들어선 첫 사례가 됐고, 거기에 다룬 「문단의 세대 연대론」이란 글이 제 데뷔작으로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그 1968년은 순수참여 논쟁이 막 일어난 시기였고 또, 경제개발 정책이 발동되기 시작하던 때였지요. 그리고 이제 문단도 전후 시대의 혼란기를 넘어가며 사회를 맞게 되면서 새로운 세대가 부상하기 시작했지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제가 문학관계 기사 쓰기를 시작했지요. 그때, 제게 가장 가까이에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도와주신 분이 작고한 문학평론가 김현이었습니다. 김현 작가는 글도 빼어나지만 문단활동을 조직화하는 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동인지를 만들자’ 해서 ‘68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그 4.19 세대 젊은 문학인들을 모아서 동인지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때 저도 가입 권고를 받았지만 저는 기자였고 어딘가 참여하면 편파성을 띄게 될 테고 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립성이 없다고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될 테니, 그래서 평생 기자로만 남기를 바라며 그 제안을 거절했어요. 주간지에 그 잡지 동인지를 만든 것과 함께 동인지 멤버 한 20명 가까이가 발표되었는데, 그 안에 제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의를 했지만 일단 기사화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서 저도 제 책임을 하는 데까지 하겠다고 했어요. 거기서부터 제가 비평가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1970년에 정식으로 『문학과 지성』 계간지를 발의해서 만들게 되면서부터, 그게 동인으로 참여를 하면서 본격적인 비평 활동이라 하는, 그걸 시작하게 되었지요.

### 1960년대 일어난 ‘순수참여논쟁’에 대해 들려주세요.

1968년 말 가을에 ‘순수참여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동아일보》 기자로 있을 때, 그 논쟁을 일으켰어요. 김봉구 교수 발표 논문을 가지고 문단을 이쪽저쪽 양쪽을 복원해서 논쟁을 붙였고, 그래서 1969년부터 ‘순수참여논쟁’은 상당히 문단을 시끄럽게 하고 문단을 양분시킨 동기가 되었죠. 제가 또, ‘청년 문화론’이라는 것을 제기했어요. 1967~1968년경인 것 같은데 미국에 68세대라는 게 있죠? 불란서나 서구에서도 68세대라는 게 있는데, 기존의 교육체계에 대항하는 문화, 예술 문명과 독립되어 저항하는 그런 예술 활동을 벌이기 시작한 게 68세대예요. 그것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68문화인 ‘청년문화’를 제기했죠. 그걸 처음으로 1970년대 청년 문화론 지역을 가지고 한 일이고, 그러니까 기자로서도 말썽을 많이 일으킨 셈이죠.

### 유년 시절을 지내며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대전은 문인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아마 1940년이 아닐까 싶은데 대전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6년 동안 대흥 초등학교를 다녔고 그 옆에 붙은 대전 중고등학교를 다녔지요. 그리고 서울로 진학한 후에도 방학에는 부모님이 계신 대전으로 와서 지냈고, 그러니까 20여 년 동안 대전생활을 한 것이고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를 다 대전에서 보냈지요. 중학교 3학년 때인가, 1953년에 대전중학교 교지가 나왔어요. 거기에 쓴 시가 제 최초의 인쇄된 글인 셈이지요. 제 큰 형님이 6·25 전쟁으로 전사하셨는데, 전사하기 전에 휴가를 오셨어요. 육군 대위 계급장을 달고 대전에 오셔서 저와 작은 형님하고 함께 3형제가 고향 경북 상주에 갔었는데 그때가 눈이 하얗게 내리던 한 겨울이었거든요. 그곳에 달은 환히 비치고, 함께 걸었던 그 눈길에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았었는데, 큰 형님이 군대로 돌아가서 몇 달 후에 전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함께 했던 그 눈길에 대한 회상을 담은 그 시를, 중학생이었던 제가 쓴 거죠. 그게 교지에 발표된 것이 인쇄된 저의 첫 글이에요.

### 선생님에게 문학이란 어떤 의미이며 글을 쓰며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무엇인가요?

제 친구 김현 작가는 글을 쓸 때 참 행복감을 느낀다고 했어요. 근데 제 자신이 그냥 글쓰기의 어려움, 괴로움 그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저는 글을 쓰면서 행복하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저 자신이 이 사회에 대해서나 저 자신을 향해서나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라고는 글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행위 자체는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 행위에 있는 진지성이라든가 자유로움이라든가 또 어떤 때는 발랄함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느끼는 보람 같은 것은 저를 지탱시켜주는 힘이었죠.

### 비평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솔하게 비평이란 말에 대해서 정의와 실천이 있어왔긴 했지만 저로서는 그래요.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 그러니까 언어와 사유의 표현에 그것이 우리의 정신사나 역사나 삶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것을 덧붙여 주는 행위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비평이란 이름으로 억압을 자행할 일이 아니라 자유롭게 의미를 찾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는 것이 비평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 “비” 자 때문에 자꾸 남을 비평, 비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저는 남을 복돋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열어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게 비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문학과 지성사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968년에 <68문학>이라는 동인이 김현 작가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책 한 권을 내고 그 모임 자체는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크게 보든지 작게 보든지 그 시절이 아주 착잡하던 6월~7월 초였던 것으로 기억이 되네요. 그때 김현 씨가 <동아일보>로 저를 찾아와서 커피숍에 앉았는데 “잡지를 내자, 참여파는 창비라는 중요한 미디어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다. 그것을 좀 만들어보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전체 동의를 했는데, 창간 의도는 저하고 좀 달랐어요. 김현 씨는 문학적인 순수 운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미디어가 필요했지만 저는 언론 자유가 억압되기 시작했으니까 그것을 저항하고 회피하는 방법으로 문학지를 통해서 언론화시키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였어요. 김현 씨의 친구인 불문과 같은 평론가 김치수 씨를 동인으로 포함시키고 또 일본으로 유학을 가 있던 김주연 씨를 끌어들이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전부 다섯 사람, 황인철 씨는 문형 동인이랑 이름으로 포함을 시켰지요. 김현, 김치수, 김주현, 저 이렇게 편집 동행이 돼서 잡지를 창간하자 모두가 다 김씨라 4K란 별명이 붙기도 하고, 그래서 10월 달부터는 한편은 문화부에 등록절차를 하고 한편으로는 원고 청탁을 하고 또 쓰기도 하고 그래서 1970년 9월 초에 계간『문학과 지성』이 창간이 됐죠.

### 문학과 지성사의 앞으로의 사명과 과제가 있다면요?

그렇죠. 43년이에요, 출판사를 시작한 지 43년이 됐죠. 그 70년대와 80년대에 창비와 함께 가지고 있던 문학과 지성사의 영향력은 상당히 이념적으로 컸을 뿐만 아니라 작품 자체에서는 제일 압도적인 자부심을 가질 만했죠. 창비 쪽의 한 비평가가 정직하게 말한 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처럼 40년 된 것은 아마 드물 거라는 겁니다. 이제는 문학적인 이념이니 그런 것과 함께 그보다 더 인간적인 우정이라든가 문학적인 애정이라든가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문학과 지성에 그 시대적인 입문은 시효를 거의 넘겨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존속하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여전히 듭니다.



### 앞으로 평론이 나아갈 길을 이야기해주세요.

그동안 비평이라는 큰 이름보다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제 생애가 엮여 왔다고 할까요? 책을 읽는 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모두가 할 일이고 해야 할 일이지만 전 원고지에 글을 쓰고 또, 남의 글을 보고 그걸 편집해서 책을 만들었지요. 이런저런 책들에 대한 서평이나 비평을 강요하고, 그렇게 해서 제 사회생활과 정해진 생활을 해왔어요. 이 한 평생을 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방향으로 펼쳐져 온 것 같고요.

사실 전 그래요. 어떤 작품에 대해서 부정적인 비평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책을 왜 열심히 생각하고 썼을까?’ 그렇게 물어보고 싶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생각 나를 깨우쳐주는 글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와 그 책, 나와 저자 간의 대화를 하면서 ‘맞다, 우리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하고 우리 사회를 좀 깊이 해야 한다.’ 하며 공감하고 한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비평작업이 좀 더 심화될 것 같아요. 요즘 웬만한 짧은 소설이라도 외국 이야기 안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의식이 높아지고 또 생활의 정도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후진국 의식, 식민지적 의식, 이런 후진 의식으로부터 보편적이고 전반적인 시각으로 우리 비평 의식을 좀 더 넓혀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진한 감성을 담은 노래로 꽃 피우는 시인

### 꽃에 눈 멀다

모래재 마을 가는 길가  
줄지어 늘어선 저 벚나무들  
목화솜 한 광주리씩 머리에 이고 서서 무슨 생각 하고 있나  
안갯속을 헤매이듯 꿈꾸는 봄날  
화선지 온 장을 여백으로 비워놓고  
울렁증 없는 하루가  
벗 달을 길 없는 색의 맹지(盲地) 그 한가운데를  
구름처럼 가고 있다  
눈부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네

# 정상순

시인

#### 생년 및 출생지

1937. 경상북도 청도

#### 출신학교

국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등단

1959. 『자유문학』

#### 문단 활동

대전문인총연합회 · 호서문학회 회원  
대덕문화회 회원

#### 주요 저서

시집  
『막사발 주린 그리움』  
『꽃에 눈이 멀다』

#### 시화집

『사색과 영원』

#### 상훈

호서문학상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정상순 시인의  
아카이빙 영상으로 연결됩니다.

### 유년 시절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는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철도국에 역무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유년시절을 보냈어요. 8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40세라는 그 나이를 넘겨서 저를 낳으셨어요. 많은 식구들이 한 집안에서 그렇게 유년시절이라는 잠깐 행복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1945년에 해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오빠 두 내외를 청도예다 떼어 놓고 나머지 식솔들을 이끌고 아버지 고향이신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라는 아주 산골짜기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 시절을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 세대가 그랬듯이 우리는 많은걸 겪었어요. 일정시대를 겪었죠. 그다음에 해방이 되어 해방의 혼란스러운 시기도 겪고, 6·25도 나서 정말 어려운 시절을 겪었어요.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정돈 됐을 때,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4·19가 났었어요. 그 4·19의 소용돌이 속에도 빠져보고 5·16 군사혁명도 겪어보며 그렇게 많은 질곡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 작가의 꿈은 언제부터 가지게 되었고 그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교과서에 실린 노천명 씨의 「추석」이라는 시를 처음에 배웠을 때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노천명 시인은 밤, 대추를 팔아야만 추석을 치를 수 있는 가난한 가족들과 연결해서 보름달이라는 것을 다르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옛날에 달을 좀 무서워했어요. 달이라는 이미지가 주는 괴기함이 저한테는 좀 무서움으로 다가왔거든요. 어릴 때 달밤에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저 시골에서는 여우가 울고 늑대가 우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무섭고 그랬죠. 하지만 그 시를 읽음으로써 달밤과 그 가난한 시인이 그런 것들을 다 포용을 해서 녹여가지고 하나의 아름다운 시를 만들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때부터 노천명의 시집을 찾아서 읽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의 시집, 정지용 시인과 박목월 시인 등의 시집을 제가 살 수 있는 여력이 안됐기 때문에 빌려서 읽고 도서관에 가서 읽고요. 그렇게 시와 접하는 계기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 공초선생님과 인연이라든지 『자유문학』에 관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1960년이겠네요. 4·19 대열에 참여하다가 경찰에게 쫓겼어요. 그래서 시청으로 도망쳤다가 명동 서라벌다방에 들어갔어요. 그때 마침 공초 선생이 계셨어요. 쫓기다가 들어온 저에게 공초 선생이 차 한 잔을 주시면서 저도 발자국을 찍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서라벌다방에는 다방에 온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는 노트가 있었어요. 거기에 시도 좋고 그림도 좋고 만화 같은 그런 것들 다 남기고 갔지요. 저도 그래서 공초 선생님을 뵈 첫인상을 간단하게 시 형식을 빌려가지고 제가 짧은 글을 하나 남겼어요. 그랬더니 공초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인석 선생님이 오셨다가 그 글을 보시고 글을 카페에 가지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등단의 길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 글을 베껴가지고 갔어요. 당시에 이인석 선생님이 『자유문학』의 심사위원으로 있으셨어요. 심사위원이 김광섭 씨하고 모운숙 씨하고 이인석 씨 세 분이 계셨고요, 그때는 「자유문학」이나 「현대문학」, 「사상계」 이렇게 세 군데가 문인이 되는 등용문이었습시다. 그렇게 얼떨결에 문인의 길도 모르는 시절에 추천을 받았습시다. 그 당시에는 문단에 등용하는 제도가 지금처럼 문학상이나 그런 걸 받아서 가는 게 아니었어요. 엄격하게 3회 추천에 3회의 심사를 거쳐야지 비로소 문인으로써 인정을 해주었지요. 10년 만에 문단에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너무나 빨리 3회 추천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금방 시인이 된다는 것을 저는 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 너무나 어린 나이에 시인이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 계기로 인해 공초 선생 주변에서 많은 문인들과 교류하게 되었지요. 그것이 내 시를 쓰는 밑거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최근에 낸 시집을 소개해 주세요.

시는 마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관념과 상식을 깨고 올바른 자기 자아를 갖다가 잘 구현하고 그런 것들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이 시거든요. 시라는 것은 그냥 열심히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물이나 사람들한테 받은 이미지를 자기가 용해하고 자기 자아에 접목시켜서 뱉어내는 그 시가 참으로 시죠. 그냥 이렇게 나무면 나무, 풀이면 풀, 자연이나 사건 같은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필사처럼 대신 써주거나 사물을 보고 그냥 베끼는 것은 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는 앞서 이야기한 사물이나 사람을 보고 받은 인상을 보고 시로 바꾸는 기법들을 많은 문인들한테서 배웠어요.

제 시에 부조리를 은유법으로 조금씩 표현한 작품들도 몇 있는데요. 예컨대 「한여름 밤의 꿈」이라는 것이 있어요. 민초, 우리의 평범한 시민들의



애환이나, 그것에 희망을 시에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확률」이라는 시에 서는 잡초에 대한 운명적인 것들을 살짝살짝 표현했던 게 있었어요.

제가 두 번째 시집에 실을 시를 쓸 때 많은 용기를 냈어요. 어떤 용기인가 하면요, 제 시집이 그냥 독자들에게 읽히기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제 시로 인해 사람과 사람이, 사람과 사건이, 혹은 사건과 유기적인 것, 사물들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 시의 지평이 넓고 따뜻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새로운 생각이라는 것은 익숙한 자아에 함몰되어 나오지 않아서 시를 쓰면 늘 쓰던대로 나오더군요. 그래서 원하는 방식으로 쓰기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좀 더 따뜻한 시를 쓰려고 해요. 부조리한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의 그 상처를 치유해 주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시 하나 써보고 싶다는 소망이 있어요. 사람뿐 아니라 자연과도 소통해보고 싶고 이제 제가 조금씩 마음이 넓어진다고 그럴까? 그런 쪽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조금씩 흘러가는 것 같아요.

### 작품 구상은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사물들, 예를 들어 꽃이면 꽃, 바람소리면 바람소리, 풀벌레 울음소리면 울음소리 그 어떤 사물이 저에게 말을 걸어올 때 비로소 제가 화답하는 형식으로 글을 쓰게 됩니다. 이를테면 제가 사물을 받아드릴 상태가 안 되면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보든지 아무리 화려한 어떤 그 경치를 보더라도 거기에서 오는 이미지가 없지요. 그러면 제가 시를 쓸 수가 없어요. 사물이 저에게 오고 또 제가 그 사물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동화될 때, 산이면 산, 바위면 바위, 물이면 물. 단순한 자연이 되지 않고 제 마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제 자화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시가 지금 몇 편이 떠돌아다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시가 다 제 자화상이에요. 다각도의 제 자화상을 지금 그리고 있거든요. 꽃을 그리는데 꽃이 아니고 꽃이 저에게 걸어 들어와서 제가 꽃과 동화되어 제 자아를 어떤 시에 생기는 마음으로 그리게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경치를 보든지 아무리 화려한 어떠한 것을 보더라도 저쪽이 말을 걸어오지 않으면 저는 시를 못 써요.

그런 의미에서 글을 쓴다는 자세는요, 자기 성찰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 그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근엄해져야 돼요. 그럼으로써 저에게 비치는 사물의 영혼들이 제대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글 쓰는 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는 성찰이 없으면 어느 사물이건 사람이건 산짐승이건 풀벌레 소리건 아무런 감흥을 못 받아요. 그것은 어떤 사물과의 교감이거든요. 거기서 탄생하는 것이 시라고 생각해요.



### 후배 문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시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문인이 되고 싶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꼭 이 한마디를 전하고 싶어요. 그것은 제가 문학의 길을 걸어오면서 실패했기 때문에 후배들한테는 '이렇게 해야 좋은 시를 쓰겠다.'고 생각한 제 나름대로의 다짐을 하나 전하고 싶은데요. 문학이라는 것이 그림이나 음악과 같은 어떤 장르가 나눠진 것이 아니고, 예술의 범주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융합을 해야지 비로소 글이 나오거든요. 가령, 음악의 어떤 리듬은 시에서 절대로 필요한 요소고요. 그림의 색채라는 것은 시의 색채와 빛깔을 같이 하고요. 후배들은 너무 일찍 문단에 나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음악도 공부하고, 미술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철학도 사상도 종교도 심지어 법학까지도 다 섭렵해서 기초를 단단히 다진 후 글을 쓰면 기반이 단단한 시가 되리라 생각해요. 제 경우에는 너무 일찍 나왔기 때문에, 꽃과일을 익지도 않게 따버렸기 때문에 제가 50년이라는 공백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새로 나오는 시인들은 성급하게 문단에 나오려고 애쓰지 말고 문학에 대한 이해도 넓히고 모든 장르의 예술을 섭렵한 다음에 시를 써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때 자기가 정말 쓰고 싶은 시를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문학적 경계를 넘나들며 세상과 소통하는 소설가

언니가 회한이 어린 한숨을 포옥 내신다. 나도 덩달아 한숨이 나온다. 언니가 다시 창밖의 정원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나도 가로등 불빛에 몸을 맡기고 다소곳이 잠을 청하고 있는 정원의 나무들에게 눈길을 준다.

“나는 요즘 말야.”

언니가 창밖에 눈을 준 채 혼잣말처럼 말문을 연다.

“암사마귀 같은 여자가 바로 나 아닌가, 하는 자책감이 들 때가 있어. 교미가 끝나자마자 새끼의 영양을 위해 배 위에 있는 수사마귀를 남김없이 먹어버리는……. 자주 아이들 쪽으로 등이 떠밀려가면서, 점점 멀어져 가는 니 형부와의 거리를 안타깝게 의식하면 할수록 말야. 우습지?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을 하다니.”

“우습긴. 형부의 소설에 나오는 얘기대로 하자면 그건 신의 농간이 아니겠어?”

“신의 농간?”

언니가 고개를 돌려 나를 뵈히 바라본다. 나도 고개를 돌려 언니의 시선을 맞받는다.

“경배 받을 종의 숫자를 늘리는 일에만 몰입하도록 인간을 조종하는 신의 농간. 그런데 정말 신은 있는 거야? 언니는 어떻게 생각해? 정말 예수가 있다고 믿고, 열심히 성당에 나가는 거야?”(… 중략 …)

“알만 해. 형부는 기독교도 불교도 다 받아들이면서 얹매이기를 거부하는 종교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 스스로 무애교도이기를 자처했으니까.”

“무애교?”

“없을 무無, 장애 애碍, 가르칠 교敎 어디에도 구애를 받지 않고,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종교.”

“무슨 뜻인지 알 것 같다. 니 형부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 예수를 모르면 어쩌냐. 석가를 모르면 어쩌냐. 예수를 모르고 석가를 몰라도 예수와 석가의 가르침대로 살면 그는 이미 예수 안의 사람이고, 석가 안의 사람이고, 예배당이나 법당에서 철야기도를 아무리 민사옵니다를 천만 번 외쳐도 그분들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는 예수나 석가 밖의 사람이 아니겠느냐고 그러면서 성경에도 ‘너희가 아버지, 아버지, 하고 간구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바람의 기억』중에서

# 강태근

소설가

### 생년 및 출생지

1948. 논산

### 출신학교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박사 졸업

### 등단

1975. 국방부주최 광복 30주년기념  
현상소설 당선

### 문단활동

한국소설가협회 중앙위원  
대전·충남 소설가협회 부회장  
대전문인총연합회 부회장  
『문학마당』 창간 및 주간

### 주요경력

대전문화관 관장  
고려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한국예술위원회 심의위원

### 주요저서

소설집  
『잃은 사람들의 만찬』

### 창작집

『아름도 가꾸면 반짝인다』  
『네 말더듬이의 말더듬기』  
『신을 기르는 도시』  
『문학과 언어』

### 연구서

『한국현대소설의 풍자성 연구』  
『글쓰기 이제 이렇게 시작하자』  
『논술축지법』  
『글쓰기의 발견』

### 상훈

대전광역시 문화(문학)발전 기여 공로상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강태근 소설가의  
아카이빙 영상으로 연결됩니다.





### 주변에서 선생님에 대해 '문학 천재'라고들 하던데요?

제가 대한민국 제1회 학생 예술문화상 수상자예요. 그건 뭐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영재교육이예요. 과학 영재교육 그런 것처럼 예술분야의 영재를 국가에서 기르기 위해 이 상을 제정했어요. 제가 그 대회 1회 수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전국 백일장, 문화예술상 등 상을 싹 쓸다시피 했죠. 그리고 대학교 백일장 현상에서 당선을 했는데, 그것을 계기로 소설가 황순원 선생님께서 저를 제자로 받아 들이셨어요. 훌륭한 소설가로 키우겠다고 문예 장학생으로 대학교에서 선발해서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을 했죠.

### 등단을 하게 된 계기와 첫 작품을 소개해주세요.

대학 입학하고 나서도 생활이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 저는 문예 장학생 혜택이 오지 않았다면 대학을 갈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서울로 가는 건 유학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어려운 상황인거죠. 제가 장남이기도 하고, 글도 글이지만 그 당시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어떻게 하든지 취직을 제대로 해서 집안 살림을 담당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글 쓰는 것을 유보하고 있었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욱 문인 예술가가 생활을 제대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생활이 가까워지면 예술이 멀어지고, 예술이 가까워지면 생활이 더 멀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당선시키고 장학생으로 뽑아 주셨지만 황순원 선생님을 찾아뵙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2학년 때, 창작론 시간에 황순원 선생님을 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과제를 주셨어요. 소설 한편씩 써오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정읍사」라는 소설을 써서 선생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다음 강의 시간에 저더러 교수 휴게실로 좀 올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죠. 교수 휴게실을 가니까 선생님께서 “이 소설 정말 자네가 썼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섭섭했죠. 선생님이 뽑아서 장학생 만들어 놓고 그런 말씀을 하니깐 벌써 잊어버리신 거죠. 안보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서운해서 이야기 했죠. “선생님께서 저를 장학생

으로 뽑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 그렇지! 자네!” 그러면서 “이 소설 정말 잘 썼어.” 그러면서 학보에 우선 신고 추천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양을 했었어요. 건방진 생각이었지만 그 때는 서양에는 없는 추천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일제 잔재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저와 뜻이 같은 친구들이 하자고 해서 무크지(부정기간행물) 문학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군대 갔을 때, 국방부에서 <광복 30주년 기념 현상 소설 모집>을 했어요. 포상도 준다고 그래서 보초를 서면서 썼는데 그것이 특선으로 당선을 했어요. 김동리 선생이 선을 했는데 바로 「고향」이라고 하는 작품이예요.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마을이 배경이예요. 그 마을 안에서 일어나는 한 가족의 불행한 일, 남북 문제에 대해 썼어요. 그래서 제목을 ‘폐촌’이라고 지었는데 나중에 김동리 선생이 자기가 임의로 신문에 발표할 때는 「고향」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고향’이 됐지요.

### 문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영향을 준 사람과 작품은 무엇인가요?

전 대전 출신이예요. 논산에서 태어났지만 초등학교 때 대전으로 전학을 왔으니까요. 그때 당시 대전의 유명한 시인, 박용래 시인 있잖아요. 그분을 중학교 때 만나서 평생을 함께했어요. 박용래 시인은 지금 작고하셨지만 그 가족들과고는 지금도 한 가족처럼 지내요. 그리고 지금 생존해 있는 조남희 시인, 대학교 퇴직을 하고 시만 쓰는 최용규 선생님, 또 한성기 시인 이런 분들하고 교류를 했어요. 제가 나이가 어려 연령 차이가 많으니까 모시고 다녔다고 해야겠네요. 그리고 또 고인이 된 홍인표 시인과는 아주 가까웠고요. 이런 분들을 대개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많은 문인들과 만나왔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대전 문단사에 대한 속속들이 사정을 저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대전 문학의 산 증인이라고요. 그래서 대전문단사와 관련된 책을 한 권 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문학이란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저한테는 ‘문학은 종교 이상의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35살에 교수가 된 후에 박정희 군사 정권 때 말 안 듣는 교수를 길들이려고 교수 책임용법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 똑똑한 교수들이 많은 희생을 당했는데 저도 거기에 걸려 22년 동안 사투를 벌였어요. 그 22년 동안 산속에 들어가서 스님들하고 한 10여 년 살다가 내려오고 갖은 고초를 다 겪었어요. 그런데 그 고초를 겪으면서도 제가 글을 쓸 수 있다는 것, 제가 제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것, 문학이 저를 지켜줬다는 것, 그게 참 많은 힘이 됐어요. 그래서 저에게 문학은 “어느 종교 이상으로 끝까지 제가 붙들고 제 할 말 하다 갈 수 있는 정신의 고향”이예요.



### 유년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논산군 두마면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두마초등학교 1학년 다니다가 대전으로 이사를 와서 선화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 시절에는 전부 다 어려운 시절이었죠. 우리집도 굉장히 가난했어요. 뭐가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찢어진 거를 꿰매면서 가난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워 가지고 집도 없었고 농토도 없고 그래서 아버님이 객지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이거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 했고 또 제가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식이라도 잘 길러야겠다.’ 해서 대전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나오게 됐지요. 큰 인물들, 위인들을 보면 99%가 다 유년시절의 고통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헤르만 헤세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 「수레바퀴 밑에서」라는 작품은 자기 어린 시절의 고통의 세월을 바탕으로 해서 쓴 소설이거든요. 저도 시골에서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것은 저에게 ‘하늘이 정해준 선택된 그런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는 제가 큰 상을 받아서 신문에도 크게 났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너는 이광수 같은 작가가 돼라.”라고 말하니까 저도 작가가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는 작가와 교수라는 두 가지 꿈을 가졌어요. 사실 다 이뤘죠.



### 대전문화관장도 역임하셨지요?

대학교에서 정년을 하고 나왔는데 2대 대전문화관장직에 초대를 해서 제가 했어요. 그리고 나서 대전문화관이 충남·북의 거점 문학관이 됐어요. 국립문화관 설립을 위해 서울에서 회의할 때 제가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중앙으로만 이렇게 다 되면 안 된다. 예술 같은 것은 특히 지역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지방 분권화 시대에 말이 안 된다. 이걸 분산시키자.”라고 말이에요. 그 후, 서울은 서울대로 놓고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강원도, 인천시 이렇게 나눠서 충남·북도의 거점 문학관이 바로 대전문화관이 됐어요.

대전문화관은 시립문화관이니까 시민들과 특히 소통이 많이 돼야 하고 또 시민들이 문학관으로 와서 문화적으로 성숙한 뭔가를 얻어가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문예창작반을 시부와 산문부로 나누어 개설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배출된 문인들이 여럿 나왔어요. 문학회도 시민 중심으로 만들어서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금년만 해도 제가 대전문화관에서 1년 강의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세 사람이 수필가로 등단을 했고 신인상을 받았어요. 또 전국 시낭송·암송 대회에서 전국 1등 수상을 하기도 했어요.

### 소설의 소재는 어떻게 찾으시나요?

소설은 사람 이야기이고 생활 이야기이지만 우리 사회에 어떤 부정적인 것을 고발하기도 하고 개선 요구도 하게하고, 사회 정의 이런 것들이 기본을 이룬다고 봐요. 그래서 대개 영감은 물론 자기의 과거사라던가 애절한 사연, 체험 등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 그것은 그냥 밑바탕일 뿐이에요. 사회에서 일어나는 부조리한 사회 현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분노를 느끼고 그런 것들로 소재를 많이 취하고 또 그런 주제로 많이 쓰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쓴 장편 「잃은 사람들의 만찬」의 경우에도 제가 서문에 이야기했듯이, 부당한 해직생활 22년 동안의 자전적인 저의 가족사, 사회상을 담으며 얼마나 이 사회가 잘못되어가고 있는가를 정리하고 고발한 작품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것, 참을 수 없는 이런 것들에서 소재를 많이 취해서 쓰죠.

### 후배들에게 한 마디 해주세요.

황순원 선생님께서 저에게 “위대한 작가는 자기 내부에 위대한 평론가를 기른다.”라고 말씀해주신 적이 있어요. 자기가 동의하지 않는,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작품은 절대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한다면 발레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천 사람에게 한 번씩 읽히는 작품보다, 한 사람에게 천 번 읽히는 작품을 쓰겠다.” 참 멋진 말이지요. 우리 후배들이나 동료 작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대 전 문 인

사 진 · 영 상

아 카 이 빙

사 업

대전문학관에서 2013년부터 추진해온 대전문인 사진·영상 아카이빙 사업은 대전문인들의 삶과 문학세계를 기록하여 이를 문학유산으로 보존하고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대전에는 오랜 시간 동안 왕성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으면서 작품 세계가 뛰어난 원로문인들이 많다. 그 중 2018년을 기준으로, 연 나이 71세 이상이면서 문단 활동 경력이 30년 이상 되는 분들을 중심으로 대상 작가를 선정했다. 작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건강 문제, 지역의 연고성 그리고 장르별 균형이 고려되었으며 심의위원회를 거쳐 8명의 작가를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된 작가의 작품집, 육필원고, 사진, 작품세계에 대한 설명, 인터뷰 등은 지역방송국인 CMB대전방송국과의 업무 협력을 통해 '문학의 향기'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제작했다. 또한 방송을 통해 이를 공개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대전문학을 이끌어온 원로작가의 문학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원로문인들의 문학 자원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은 지역 문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학관의 핵심적인 역할이다. 대전문학관은 앞으로 지역 작가의 행보를 밝히고 그들이 쌓아온 문학사적 업적을 모아 연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문학 사랑방 역할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이 길이 우리 지역의 문인과 작품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문학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사업 개요

- 사업명 : 대전문인 사진·영상 아카이빙
- 기 간 : 2013년 - 현재
- 내 용 : 대전 원로문인의 사진 및 영상물 제작, 방송 송출, 자료 소장 등
- 대상 문인 선정 방법 : 매년 '아카이빙 대상 문인 선정 기준'에 따라 대전문학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아카이빙 대상 문인 선정 기준

1. 당해 연 나이 71세 이상 문인 또는 건강이 극도로 쇠약한 문인
2. 1. 해당자 중 문단 30년 이상 활동 및 작품성을 인정받은 문인
3. 1. 2. 해당자 중 지역 연고성이 상대적으로 큰 문인 (출향문인 포함)
4. 1. 2. 3. 해당자 중 아카이빙 대상자의 장르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정함
5. 위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역 문단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문인으로서의 품위를 실추했다고 판단되는 문인은 선정 제외함

## 제작 개요

- 제작 형식 : ENG(영상), 필름·디지털이미지(사진)
- 제작 분량 : 방송 송출용 영상(25분), 사진(20컷 내외)
- 방송 송출
  - 방 송 명 : 문학의 향기
  - 기 간 : 2018년 4월 - 12월
  - 방 송 사 : CMB대전방송
  - 방송권역 : 대전·세종·충남 7개 권역

대전문인  
사진·영상  
아카이빙  
사업

연도별 대상 문인

연도	이름	활동 장르	생년	프로그램 첫 방영일
2013	임강빈	시	1931	2013. 03. 31.
	유동삼	시조	1925	2013. 04. 26.
	손기섭	시	1928	2013. 05. 26.
	최원규	시	1933	2013. 06. 30.
	안명호	시	1934	2013. 07. 28.
	최송석	시	1937	2013. 08. 25.
	조남익	시	1935	2013. 09. 29.
	송백헌	평론	1935	2013. 10. 27.
	구상희	시	1929	2013. 11. 24.
	이용호	시조	1935	2013. 12. 29.
2014	강나루	수필	1933	2014. 01. 26.
	신용협	시	1938	2014. 03. 31.
	곽우희	시	1937	2014. 04. 27.
	한상수	아동문학	1938	2014. 06. 15.
	이도현	시조	1939	2014. 06. 29.
	오원영	시	1938	2014. 07. 27.
	도한호	시	1939	2014. 08. 31.
	김병욱	평론	1939	2014. 09. 28.
	김원태	시	1938	2014. 10. 26.
	서석규	아동문학	1933	2014. 11. 30.
2015	최문휘	희곡·시	1929	2014. 12. 28.

연도	이름	활동 장르	생년	프로그램 첫 방영일
2015	정만영	아동문학	1946	2015. 04. 26.
	송근영	아동문학	1925	2015. 05. 10.
	박경석	시·소설	1933	2015. 05. 31.
	송하섭	평론	1941	2015. 06. 21.
	안초근	시	1941	2015. 07. 19.
	김영수	아동문학	1940	2015. 08. 23.
	유준호	시	1943	2015. 09. 29.
	이규희	소설	1937	2015. 10. 20.
	신길우	수필	1941	2015. 12. 08.
	정광수	시·평론	1939	2015. 12. 20.
2016	이대영	시	1937	2016. 05. 22.
	이장희	시	1946	2016. 06. 19.
	윤월로	시·수필	1947	2016. 07. 17.
	김용재	시	1944	2016. 08. 14.
	김동권	소설	1944	2016. 09. 11.
	변재열	시	1946	2016. 10. 09.
	이정웅	수필	1940	2016. 11. 06.
2017	박상일	시	1944	2016. 12. 04.
	김영훈	아동문학	1947	2017. 05. 14.
	송한범	시	1947	2017. 06. 11.
	최자영	시	1944	2017. 07. 09.
	변상호	아동문학·희곡	1937	2017. 08. 06.
	이관목	시	1947	2017. 09. 03.
	윤채한	시	1947	2017. 10. 01.
	배인환	시·수필	1940	2017. 10. 29.
	오효진	소설	1943	2017. 11. 26.
2018	장춘득	시조	1938	2018. 04. 29.
	임기원	시	1946	2018. 05. 27.
	유종슬	아동문학	1943	2018. 06. 24.
	박권하	소설	1945	2018. 07. 22.
	권택영	평론	1947	2018. 08. 26.
	김병익	평론	1938	2018. 09. 23.
	정상순	시	1937	2018. 10. 28.
	강태근	소설	1948	2018. 11. 25.



